

## 2008 새해 특집



# 막강 KIA

## "GO! V10"

서재응·최희섭 투·타 핵심...역대 최강 전력  
8월 김진우 복귀 등 특유 조직력 회복 기대

### '2008 시즌은 'V10' 간다'

함평 한국 프로야구계를 평정하다 두 차례나 골짜기로 추락한 호랑이 군단이 2008년을 맞아 다시 힘찬 포효를 내지르고 있다. 메이저리그 출신 투수 서재응과 타자 최희섭의 가세로 초호화 전력을 갖춘 KIA는 올 시즌 시작전부터 2008시즌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최하위로 마감한 2007시즌을 뒤로하고 9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룬 명문 구단 해태(KIA 전신)의 전력이 뒤지지 않는 초호화 스타 멤버를 구축, 'V10' 달성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것.

2008 시즌을 맞이한 KIA도 전신인 해태 시절 못지 않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하고, 투·타의 전력도 역대 최강으로 꼽힌다. 그래서 올 시즌 우승에 대한 전망도 밝다.

### ▲막강 선발진 구축

메이저리그 출신 서재응의 합류로 선발진이 막강해졌다. 조병현 KIA 감독은 일단 올 시즌 1~3선발로 서재응-신입용병-윤석민을 낙점했다.

여기에 지난해 무단 잠적으로 임의탈퇴했던 '토종 에이스' 김진우도 기나긴 방황을 마치고 모교인 진흥고에서 내년시즌 복귀를 위해 구슬땀을 쏟아내고 있다. 김진우는 올 8월 1일부터 마운드에 설 수 있다. 무더운 8월은 각 구단들의 힘이 소진되는 시즌인 만큼 김진우의 합류는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나 다름없다.

뿔뿔이 뚫린다. 올 시즌 2승 3패 25세이브를 올린 '특급 마무리' 한기주가 버티고 있는데, 이미 올 시즌 30세이브 달성을 목표로 설정해 놨다.

젊은 어깨들도 무럭무럭 성장중이다. 백업 요원인 양현종, 문현정, 오준형, 고우석, 손영민 등은 타 팀에서 선발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는 자원들이다.

### ▲빅초이 버티 타선도 최강 라인업

메이저리그 출신 거포 최희섭이 버티고 있는 타선도 최강 전력

이다. 최희섭은 지난 시즌 데뷔 직후 부상으로 신음하기도 했지만 52경기에서 타율 0.337, 7홈런을 터뜨렸다.

올 시즌 '홀런왕'을 목표로 미국에서 개인훈련에 돌입한 최희섭은 팀 타선의 중심이다.

최희섭과 더불어 지난 시즌 '타격왕'과 '안타왕'에 오른 이현곤과 '3할타자' 장성호, 신인 용병 타자 등 황금 타순이다. 특히 좌타자 최희섭과 용병 우타자의 영입으로 중심 타선의 좌·우 대칭도 맞았다.

또 '최고참' 이종범이 여전히 견제함을 과시하고 있고, 빠른발 이용규도 내년 시즌 3할타를 자신하고 있다.

예상 타순은 1번 이용규-2번 이현곤-3번 장성호-4번 신인용병-5번 최희섭으로 상대팀 투수들이 잠시라도 쉬어갈 곳이 없을 정도다.

### ▲무너진 위계질서도 확립

호랑이 군단은 전통적으로 위계질서가 강한 팀이었지만, KIA로 새 옷을 갈아입은 뒤 타 지역 선수의 대거 유입 등으로 선·후배간 관계가 무너졌다.

하지만 올 시즌은 다르다. 근거반장을 자처한 광주일고 출신 서재응의 합류로 마형 이종범의 입지가 강화된 것.

이종범은 서재응과 같은 광주일고 출신으로 7년 선배다. 여기에 같은 고교 출신인 김중국, 김상훈과 이현곤이 팀 내 질서를 바로 잡고 나섰다.

이종범이 최고참을 맡고 김중국이 보좌해 주면 동기인 서재응·김상훈은 허리 역할을, 최희섭, 이현곤은 젊은 후배들의 분위기를 책임지는 구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 KIA 선수들 새해 인사

▲이종범(38·외야수)=팀 만행으로 책임감이 막중하다. 후배들과 힘을 모아 타이거즈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V10'을 기대해 달라.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큰 힘이다. 열심히 할테니 야구장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서재응(31·투수)=개인적인 성적도 중요하지만, 팀의 승리를 올리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주변의 기대가 커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고향팀에 합

류한 만큼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남은 힘을 모두 쏟아내겠다.

▲최희섭(29·내야수)=지난해엔 한국야구에 적응하느라 타격감을 찾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다. 개인적으로 시련(파혼)의 아픔도 겪었다. 올 시즌엔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한다. 홀런왕을 목표로 거포의 명성을 되찾고 싶다.

▲장성호(31·내야수)=주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2008시즌엔 3할타율에 복귀하는 게 목표다. 기복없는 플레이로 팀을 한국시리즈에 올려놓고 싶다. 팬도 팀을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현곤(28·내야수)=지난 시즌은 개인적으로 최고의 해(안타왕, 타격왕)였지만, 팀 성적이 좋지 못해 행복하진 않았다. 2008년엔 내 자신은 물론이

고 팀도 좋은 성적을 거두 모두가 웃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

▲이용규(23·외야수)=부상으로 1년을 그냥 보낸 느낌이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선 빠가 부서지도록 노력하겠다. 무조건 프로 최고의 개인 성적을 낸 2006 시즌 성적을 넘어 3할-30도루를 달성하겠다.

▲윤석민(22·투수)=2007시즌 막판에 다리부상

으로 고생을 좀 했다. 충분한 재활을 통해 좋은 모습으로 팬들을 찾아뵙겠다.

▲한기주(21·투수)=30세이브를 올리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 내가 30세이브를 올린다는 것은 곧 팀 성적도 좋다는 것 아니겠는가. 스프링캠프에서 신중 구위를 연마해 팀 승리에 보탬이 되는 투수 되겠다.

▲오준형(24·투수)=1984년생에 태어난 쥐띠다. 2008년이 '쥐띠의 해'라서 그런지 올해를 나의 해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일단 팀내 1군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선발 10승 이상을 이뤄보고 싶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